

프로그램 출연 (2) - 기독교에서의 춤

진수인 집사

기독교에서의 춤은 영과 육의 '흠없음(integrity)을 상징하며 추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속의 과정이며 해방의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서 구원에 대한 기쁨의 표현, 생생한 예배의 만남을 갖게 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무용은 예술로서의 무용의 극치로 승화시킬 수 있다.

A. 구약시대의 춤

* 행진의 춤

-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법케 앞에서 춤을 추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의 예 (삼하 6:13~16)
- 다윗은 전심을 다하여 돌았고 뛰놀았고 동글게 돌았다. 역대상15:29하에 의하면 그의 춤이 가볍게 뛰기, 또는 그와 같은 종류로 묘사되었다.

* 승리의 춤 - Dance in celebration of victory -, (삼상 18:6)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쁨으로 표현되어지며 승리하여 돌아오는 영웅들에 대한 찬사. 출애굽기 15장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방을 이야기하는데 20~21절의 말씀이다. 미리암(hopping dance) 사사기 11:34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탬버린)를 잡고 영접하니...

* 신성한 것을 둘러싸는 춤(여호수아 6장), 여리고의 함락을 목적으로 도시를 둘러싸며 도는 모습, 그 둘러싸는 행진은 하나의 종교적 행위, 법케 앞에서 일곱 제사장들에 의해서 일곱 수양의 나팔들의 소리와 7일째 되는 날 7번 도는 것은 모두 행진이 일상적인 걸음과는 달리 여호와와 현존을 믿는 신앙에서 내딛는 발걸음(step)으로 종교적인 신앙의 표현 동작이다. 이런 종류의 춤은 행진 같은 running step이나 예배자들이 손을 모으는 것, 동글게 춤추는 것으로 원무(Ring dance)의 종류

* 위안의 수단으로서의 춤(시 30:11)

시 30:11에서 저자인 다윗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다윗이 음부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하나님에게 감사함을 시로 읊은 것이다. 또한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볼 수 있는 예레미야의 가르침은 시편 30장에 나타나는 구절과도 크게 부합되며 예레미야 애가 5:15을 보면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사오며' 하는 구절은 유대민족이 슬픔을 겪게 되었다는 증거를 애조편 한(限)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내고있다. 전도서 3:4를 인용하면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라고 읊고 있다. 전도서의 저자는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회 생활에서 춤이 생생하면서도 탁월한 요소로서 생활의 필수적인 일부분이며 춤이 고통스런 생활의 고통 해소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 절기의 춤

유대인의 중요한 세 절기의 이름은 춤이 그들의 종교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을 증명한다. 애굽왕 바로의 통치 아래서 고통 당하던 유대인들을 위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살려줌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지키는 절기인 유월절, 어떤 성경연구가들은 유월절은 초기 히브리인들의 봄 축제에서 추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도약 춤에 그 기원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맥추절의 축제에는 성전에 도착할 때 여자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부녀의 뜰 (Women's court)에서 춤을 춘다. 사사기 21:19~21은 실로에는 매년 여호와를 송축하는 절기가 있음과 동시에 이 절기에 종교적인 성격을 띤 춤이 꼭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절기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기운찬 축제로서 자연이 다시 소생하는 봄에 매년 똑같이 반복되어 그들 스스로 새롭게 아름다운 생활의 기쁨 가운데서 발견하고 밝은 희망을 약속하는 것이다.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었다'라는 표현은 고대인의 합창무용(Choral Dance)내지는 왈츠(Waltz)의 형태로 원무(Ring Dance)를 전통적으로 해 나갔다. 절기의 춤을 다 종합하여 볼 때에 춤은 신성한 종교의식에 행하여지는 종교무용으로 고대 유대인의 공적(公的)예배에서 쾌활하면서도 기운찬 일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소로 춤이 추어졌음을 볼 수 있다.

시 149:3에서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춤의 많은 부분이 성일(holy day), 축제들과 연관되어 있기에 춤은 유대인의 종교생활의 보편적이고도 필수적인 것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B. 신약 시대의 춤

* 서민생활에서의 춤-무도 행위로서의 춤이 예수님 시대에 흔히 있는 일로서 아이들이 놀상 하는 놀이나 여가 행위였다는 사실은 마11:16~17에서 말해 주고 있다.

마 11:16~17을 미루어 보면 히브리 아이들은 시장이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쾌활하게 지내며, 이와 같은 장소에서는 피리소리와 리드믹한 동작, 나아가서 춤이라는 행동을 통하여 서로서로 즐기며 놀잇감을 구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일상적이라 볼 수 있다. '여호와께서 단순히 육신의 몸짓으로가 아니라 그에 대한 경건한 믿음으로 춤출 것을 명하고 있는데 온 몸짓으로 돌고 도는 동작에 자신의 육신을 내던지는 자만이 원무에 동참할 권리를 얻듯이 항상 믿음의 절정으로 움직이며 영적인 춤을 추어야 하는 것이다.

* 상류생활에서의 춤

헤로디아(Herodians)의 딸이 춤추는 장면(마 14:6, 막 6:22)을 표현하는데 사용. 마 14:6~8을 읽어보면 연회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그 당시 동양의 party는 대체로 남자만을 위한 것이었는데, 헤롯왕이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반면에 왕후가 party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예외였을 것이다. 단지 춤은 하급 여자들이 추었으므로 이는 상류에서도 춘 무언무(無言舞)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 이 축하연에서

솔로 댄서로 나오는 살로메는 매력을 끝만한 우아하고 세련된 춤동작을 보이면서 자기의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므로 헤롯이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하고 약속할 만큼 그 춤은 중요하였던 것이다. 세례요한의 죽음과 춤과의 관계는 순전히 한 여인의 복수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춤 자체가 즐겁고 오락적인 여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 천국 비유에서의 춤

천국에서 주어지는 춤에 대한 예는 눅 15:25에 "이제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탕아였던 아들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방탕한 과거를 용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하여 축하를 베푸는 장면이다.

* 결혼의 춤

결혼잔치는 여러 날 계속되며 노래와 춤이 따른다. 북이나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남자들도 기어 있고 절어가면서 춤을 추기도 했다. 결혼식 춤은 수 백년 후 중세기에 와서도 혼가 에서는 식 중 내내 춤을 추는 것이 결혼 잔치의 풍속으로 되었었다. 점잖은 유대인의 율법자인 신랑 신부 앞에서는 올리브 가지를 들고 춤을 추는 수밖에 없었다.

* 초대교회에서의 춤

초기의 기독교 교회에서는 춤을 하나님께 찬미와 구원의 방편과 또한 기쁨의 표현으로의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 외에 순교로 인하여 영원 불멸의 생명을 가지게 된 순교자들을 찬양하기 위해서도 춤을 추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닌 기독교 시민으로서 직접적인 체험의 춤에 동참자가 되었던 것이다.

기독교 무용의 쇠퇴원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으로 구약과 신약시대 뿐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의 생활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던 종교무용이 세대가 지남에 따라 점차 쇠퇴되어 현재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기독교 안에서 종교무용이 쇠퇴하게 된 원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A. 사상적 배경

무용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부정 시 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시기의 교회의 권위주의적 성격 그리고 이교도의 영향과 재난으로 인한 종교무용의 탈선과 병적인 왜곡 형태로 인하여 교황들의 금지령에 의해서 점차 쇠퇴되었다. 성서에 나타난 '몸'의 개념을 보면 고전 6:19~20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殿)인줄 알라..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다. 몸은 예배의 장소이며 몸은 곧 '나'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원론적, 삼원론적 또는 고린도교회의 사람들처럼 저급한 지상의 것으로 여겼기에 무시당하고 교회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B. 쇠퇴의 간접적 영향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럽으로 전파되어 가기 시작할 때 이미 유럽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 로마인은 종교적인 전통을 가진 자연의 힘을 신격화한 다신교적 민족이었는데 제정 후기 때에는 정치와 사회가 혼란해지자 운명의 여신에게 예배드리는 것과 검성술이 유행했다. 또한 왜곡되고 도착된 부조리한 무언극 속의 무용과 다신교적인 예배의 일부분으로 무용이 행하여졌는데 여기에 사용된 무용은 신에 대한 경건한 표현으로서의 무용이라기 보다는 육체적, 관능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비도덕적 무용이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된 무용의 형태가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파되어 무용을 부정하게 하는 간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시대가 경과함에 따라 기독교가 공인된 중세시대는 무용이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일찍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용은 쉽사리 외양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다산을 기원하는 갖가지 부적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었다. 이런 축문은 5월 초하룻날의 참회절이나 혼례, 하지, 장례...불 칼춤, 가면무 등에서도 조금도 위력이 감소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무용은 이교도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중의 하나인 부활절에서도 이교의 영향으로 음란한 춤이 공공연히 추어진 것을 볼 때 춤이 교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무용이 점차로 금지되게 되는 용인은 무용 자체가 완전히 변질된 형태로 추어졌기 때문이다. 1667년 Paris의회는 일반적인 종교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림으로 기독교의 종교무용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이교적인 영향하에 나타난 기독교의 종교무용은 타락된 춤과 영적으로 추어졌는데 심한 예로는 죽음의 춤, 무용광 등이 나타났기에 교회로부터 탄압되고 말았다.

결론

무용에 있어서 육체적 관능성의요소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인간을 영과 육으로 분리하지 않은 전인(Whole person)으로 이해할 때 무용은 종교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몸의 언어이기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작품 속에 신앙이 투영되어 그의 작품이 하나님을 증거 하는 선교 적인 측면에서 사용되며 동시에 순수한 개인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의 응답적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독교 안에서의 무용은 필수적으로 부활되어야 한다.

성서를 통한 무용의 연구는 무용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무용에 대한 성서적 기초를 형성 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위한 방법으로는 선교무용의 창작법, 안무법 논리의 체계가 적극 요구되어지는데 이는 곧 안무자의 표현에 있어서 질 높은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 Ballet의 활동은 62년 창단된 국립발레단과 통일교를 배후로 한 한국문화재단 산하의

Universal Ballet Company에 의해 그 맥이 이어져왔다.

Universal Ballet Company는 일본, 미국공연 등 해외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연은 믿음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발레 공연을 통해 그들의 이교성향을 희석하게 하고 나아가 목시적인 전도에도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반해 최근에 선교 발레공연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처럼 왜곡된 문화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영적 전쟁의 군사로 세우신 것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 속한 모든 문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문화회복의 전위대로서의 무용의 역할은 서두에 거론된 기독교에서의 춤이 영과 육의 '흠없음'(integrity)을 상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속의 과정이며 해방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나아가서 구원에 대한 기쁨의 표현, 생생한 예배의 만남을 갖게 하는데 그 뜻과 목적이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박황숙, 조승미 논문집